보건계열 교육과정에서의 인문사회학 교과목 현황

문상은 · 김윤정 · 김선영

광주여자대학교 치위생학과

Current condi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lass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a

Sang-Eun Moon · Yun-Jeong Kim · Seon-You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an's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ang-Eun Mo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wangju Woman's University, 201 Yeodai-gil, Gwangsan-gu, Gwangju, 506-713, Korea; Tel : +82-62-950-3840, Fax : +82-62-950-3840; E-mail : mrsaone@hanmail.net
Received: 10 November 2014; Revised: 25 November 2014; Accepted: 8 December 2014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a.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online received from 329 public health curricula from July to August, 2014. Categorized are introduction, management of hospital, medical health law, and ethics, patient psychology, others(communication, behavioral science, administr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descriptive analyses and χ^2 -test(SPSS 12.0).

Results: As a result of evaluate the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um, 86.0% of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71.4% of department of radiological technology and 72.6%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established more 4 classes. 92.1% of department physical therapy and 64.9% of department medical technology established more 5 credits. Numbers and credits of courses showed no differences by educational system.

Conclusion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not popularly introduced in the most departments of public health science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for training competent future professionals in the public health sciences. So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introduction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a.

Key Word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blic health curriculum

색인: 보건계열 교육과정, 인문사회학

서론

현대사회는 정부, 학교, 종교, 그리고 직업을 포함한 많은 제도권에 대한 불신과 짧은 기간 동안에 절약생활에서 급변하는 소비생활로,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검소한 생활, 다시 소비의 증가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많은 교육자들은 교육과정 안에 가치를 평가하는 경험과 명

료화하는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가치관과 도덕의식을 가르치는 하나의 접근방법인 인성교육이 도덕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재인식하고 있다¹⁾. 사회저변에 불고 있는 인문학열풍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교양과정과 비교과과정에서 다양한 교과목과 프로그램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에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달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보건의료산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고용 증대를 모색하면서²⁾ 의료계에서 전문직의 한 축인 의료기사를 배출하는 보건계열 학과의 신증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의료계의 환경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약 30년이라는 단기간에 완성됨으로써 의료접근성과 국민전체의 건강수준이 짧은 기간 동안 놀랍게 변화되었고, 저 부담-저급이여-저수가의 구조적 불합리성³⁾으로 인하여 박리다매(薄利多賣)식의 진료, 과잉진료, 부당진료 등의 의료왜곡과 의료 전문직의 자율성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다⁴⁾.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대상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그에 대해 직업적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조직을 관리,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 윤리강령을 가지고 스스로를 규제하고 있으나⁴⁾ 비도덕적 행위의 유혹을 강하게 받는 직종이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도덕적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윤리교육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과 함께 강한 도덕적 의지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은 ‘생명’, ‘건강’, ‘정의’, ‘구원’, ‘지식’ 등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이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어 전문인(professional)이라고도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⁵⁾.

의료인과 더불어 의료기사도 환자와의 접점에서 진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직업이고, 직업에 대한 뚜렷한 소명감과 긍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국내 의료계에서 의료기사는 국가 면허자격 제도로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 직종으로서 독점성이 강하고, 인력자체가 보건진료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⁶⁾. 또한 의료 인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와 비판적 사고 및 윤리적 가치관을 요구받고 있으며 새로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⁷⁾. 따라서 의료계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윤리교육 역시 주목을 받고 있으나⁸⁾ 아직까지 그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답은 부족한 실정이다⁹⁾.

의과대학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의 지식만을 습득한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문사회학 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양, 인성교육,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인문사회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¹⁰⁾. 단순히 지식의 습득과 봉사의 의미를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존의 의미 이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 교육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¹¹⁾.

이렇게 의과대학에서 강조해 온 인문사회학 교육은 의료계의 전문 인력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교육기관 중 보건계열 학과에 개설

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추후 인문사회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의료기사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346개 대학 중,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가 개설되어 홈페이지에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탑재되어 있는 32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이중 3년제 대학은 178개 대학(54.1%), 4년제 대학은 151개 대학(45.09%)이었으며,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은 103개 대학(31.3%), 2000년~2006년에 신설된 대학은 104개 대학(31.6%), 2007년 이후에 신설된 대학은 122개 대학(37.1%)이었다.

Table 1. Institution of population and subjects

Department	Population (N=346) [§]	Subjects (N=329)
Occupational therapy	61	61
Radiological technology	46	44
Physical therapy	85	84
Medical technology	52	51
Dental technology	20	16
Dental hygiene	82	73

[§]Data was by Association(KAOT, KRTA, KOTA, KAMT, KDTA, KDHA) respectively.

2. 연구방법 및 통계분석

수집된 329개 대학의 자료를 각 학과의 신설년도와 학제에 따라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과 교과목의 수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문사회학의 범주는 개론, 병원관리학, 의료법규, 윤리학, 환자심리학, 기타(행정학, 행동과학, 의사소통 등) 과목으로 구분하였다¹²⁾.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test로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alpha=0.05$ 로 하여 p값이 0.05보다 작은 경우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 성적

1. 보건계열 교육과정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수 비교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를 비교한 결과, 물리치료(학)과와 임상병리(학)과, 치기공(학)과는 전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60% 이상이 3과목이하로

개설되어 있었고,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전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70% 이상이 4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0$)<Table 2>.

2. 보건계열 교육과정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 비교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4학점 이하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작업치료(학)과(87.2%), 방사선(학)과(59.3%), 치위생(학)과(53.6%)이었고, 물리치료(학)과(92.1%)와 임상병리(학)과(64.9%)는 5학점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Table 3>.

3. 보건계열 학과의 개설년도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와 학점의 비교

보건계열 학과의 개설년도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를 비교한 결과, 2000년 이전에 학과가 신설된 대학의 49.0%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3과목 이하로 개설하였고, 2000년~2006년에 신설된 대학의 60.0%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4과목 이상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p=0.026$). 또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을 비교한 결과, 2000년 이전에 신설된 대학의 64.0%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5학점 이상 개설하였고, 2007년 이후에 개설된 대학의 43.3%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4학점 이하로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3$)<Table 4>.

Table 2. Number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um

Unit : N(%)

Department	Number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tal	p
	≥ 3	≤ 4		
Occupational therapy	8(14.0)	49(86.0)	57(100.0)	0.000**
Radiological technology	12(28.6)	30(71.4)	42(100.0)	
Physical therapy	64(79.0)	17(21.0)	81(100.0)	
Medical technology	42(85.7)	7(14.3)	49(100.0)	
Dental technology	10(62.5)	6(37.5)	16(100.0)	
Dental hygiene	20(27.4)	53(72.6)	73(100.0)	

** $p<0.01$, p-value was by χ^2 -test

Table 3. Credits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ublic health curriculum

Unit : N(%)

Department	Credits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tal (N=246)	p
	≥ 4	≤ 5		
Occupational therapy	41(87.2)	6(12.8)	47(100.0)	0.000**
Radiological technology	16(59.3)	11(40.7)	27(100.0)	
Physical therapy	5(7.9)	58(92.1)	63(100.0)	
Medical technology	13(35.1)	24(64.9)	37(100.0)	
Dental technology	8(50.0)	8(50.0)	16(100.0)	
Dental hygiene	30(53.6)	26(46.4)	56(100.0)	

** $p<0.01$, p-value was by χ^2 -test

Table 4.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established of department of public health

Unit : N(%)

		A newly established of department of public health			p
		before 2000	2000~2006	after 2007	
Number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3	59(49.0)	40(40.0)	57(48.3)	0.026*
	≤ 4	41(41.0)	60(60.0)	61(51.7)	
	Total [†]	100(100.0)	100(100.0)	118(100.0)	
Credits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4	18(36.0)	44(59.5)	42(43.3)	0.013*
	≤ 5	48(64.0)	30(40.5)	55(56.7)	
	Total [‡]	75(100.0)	74(100.0)	97(100.0)	

* $p<0.05$, p-value was by χ^2 -test, [†]N=318, [‡]N=246

Table 5.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y educational system

Unit : N(%)

		Educational system		p
		College	University	
Number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3	82(48.5)	74(49.7)	0.911
	≤ 4	87(51.5)	75(50.3)	
	Total [†]	169(100.0)	149(100.0)	
Credits of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4	48(43.0)	67(48.5)	0.442
	≤ 5	65(57.0)	68(51.5)	
	Total [‡]	114(100.0)	132(100.0)	

[†]N=318, [‡]N=246

4.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와 학점 비교

보건계열 학과의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3년제 대학은 51.5%, 4년제 대학은 50.3%가 3과목 이하로 개설되어 있었고(p=0.911), 3년제 대학의 57.0%는 5학점 이상 개설된 대학으로 4년제 대학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442)<Table 5>.

총괄 및 고안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¹³⁾.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대학은 전공교육과정을 보다 중시하고 강조함으로써,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인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위험성이 따른다¹⁴⁾. 최근의 대학교육은 성적과 실무역량중심의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¹⁵⁾, 보건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교내실습과 의료기관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현장에서 강조하는 전문직에 대한 의식이 증대되고 있다¹⁶⁾.

보건계열 학과의 양적 팽창, 3·4년제의 이원화, 의료환경의 변화는 의료계에서 전문직종인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담당자들로 하여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영역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히 양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얼마나 바람직한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교양교육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전공교육과정과는 다르게 폭넓은 사고, 효율적 의사소통, 건강한 시민의식, 적절한 판단력, 비판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강

조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한다¹⁷⁾.

이에 본 연구는 인문사회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각 의료기사 단체에서 공시하고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토대로 국내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분류하였다.

학과별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를 비교한 결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의 70% 이상에서 4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교과목이 개론, 의료법규, 관리학 등의 전통적인 인문사회학 교과목이었다. 특히 의료법규의 경우는 국가고시 해당교과목으로 모든 대학에 개설되어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북미¹⁸⁾의 의과대학에는 554개의 인문학 과목 중 필수과목이 156개, 윤리관련 과목이 411개로 학교당 평균 5.1개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수량적인 부분만 비교하여 단편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 현격한 차이가 우리의 인문사회학 교육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 개설된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는 1개에서 9개까지, 학점 수는 1학점에서 20학점까지 대학 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계열의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 것과 국가고시에 대비한 과중한 학습¹⁹⁾, 새로운 과목을 쉽게 추가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성의 경직성²⁰⁾ 또는 이를 담당할 인적자원의 부족⁸⁾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인문사회학 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문사회학 교육의 가이드라인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과별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학점 비교 결과에서는, 물리치료(학)과와 임상병리(학)과에서 5학점 이상 개설된 대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학과는 2007년 이후 개설된 대학들이 그 이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과정 편성시 의과대학⁸⁾의 영향과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과대학 교육과정⁸⁾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학교육학회나 의과대학 학장협의회와 같은 교육담당자들이 주체가 되는 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고,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하여 의학교육계의 변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따라서 의사들이 의료가 사회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사회의 한 부분이었던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인문사회학 분야, 특히 의료윤리, 의료와 사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증대와 이러한 강좌의 신규개설의 필요성이 학생, 전공의 교수를 막론한 모든 교육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보건계열 학과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수와 학점을 전체적으로 비교 결과에서는, 2000년 이전보다 2000년 이후에 4과목 이상 개설한 대학의 수는 증가하였고, 5학점 이상 개설한 대학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는 박²¹⁾의 연구에서 인문간호교육의 학점 수는 줄이고, 교과목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대학이 획일화된 인재가 아닌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측면²²⁾을 고려하여, 학제에 따른 인문사회학 교과목 수와 학점을 비교해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부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양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이 선택교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해당 교과목을 인문사회학 교과목으로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대학의 전체 교양과정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건계열의 해당학과 교육과정으로 언급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4년제 대학의 해당 교과목이 일정 부분 제외됐을 것이다. 그에 따라 3년제와 비교했을 때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수와 학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인문사회학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 학생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²³⁾. 또한 임상실습 중의 현장중심 강의, 선택과목에서 대체학점 취득 인정, 국가고시 과목에 포함²³⁾, 각 지역단체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문사회학 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하여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운영한다면, 교육과정 내에서 인문사회학 교육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의료계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당시 온라인상에 탑재되어 있는 교육과정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보건계열 학과를 대상으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건계열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인문사회학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계열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문사회학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 학과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개설현황을 비교분석한 서술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상에 교육과정이 탑재되어 있는 329개 대학이었고, 자료 분석은 SPSS/PC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χ^2 -test로 분석되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치료(학)과의 86.0%, 방사선(학)과의 71.4%, 치위생(학)과의 72.6%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이 4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었다.
2. 물리치료(학)과와 임상병리(학)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이 5학점 이상 개설된 대학이 각각 92.1%와 64.9%이었다.
3. 2000~2006년 사이에 개설된 대학의 60.0%에서 인문사회학 교과목이 4과목 이상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제에 따라 인문사회학 교과목과 학점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문사회학 교과목의 수와 학점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문사회학 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계열 교육과정에서 인문사회학 교육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각 관련단체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인문사회학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JungChan GO, Kim HH, Jung KO, Kon CH, Kim MH, Lee MH, et al. Curriculum and educational evaluation. Paju: Kyoyookbook; 2010: 38.
2. Oh YH. Changes in health care environment and ways to create jobs. Health Welfare Policy Forum 2010; 162: 22-31.
3. Shin YS. 30 Years of Korean health insurance: Its success, failure, and future directions. J Korean Med Assoc 2007; 50(7): 568-71. <http://dx.doi.org/10.5124/jkma.2007.50.7.568>.
4. Kim DK, Kon BG. Autonomy i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practice in ensuring respect for their professional autonomy. Korean J Med Ethics 2013; 16(2): 159-73.
5. You HJ. The role of virtue ethics in the study and teaching of medical professional ethics. Korean J Med Ethics 2014; 17(1): 72-84.

6. Lim JD. The medical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medical technician in hospital. *J Contents Assoc* 2013; 13(12): 910-20.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910>.
7. Coverston C, Rogers S. Winding roads and faded signs: ethical decision making in a postmodern world. *J Perinat Neonatal Nurs* 2000; 14(2): 1-11.
8. Kim HW, Ko HS, Lee MS, Nam JH, Kim WD, Lee JD. Classes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premedical and medical colleges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2003; 4(1): 97-110.
9. Park SY, Kwon BK, Kwon OY, Yoon TY. A comparison of moral intuitions about professional ethics between the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Korean J Med Ethics* 2014; 17(2): 159-71.
10. Campbell AV, Chin J, Voo TC. How can we know that ethics education produces ethical doctors?. *Med Teach* 2007; 29(5): 431-6.
11. Cheon WT, Yang EB. Future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humaniti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3: 137-80.
12. Moon SE, Kwag JS, Kim YJ. Classe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e dental hygiene curriculum.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2): 391-7.
13. Higher Education Act, Law No. 11526.
14. Lee SB. A comparative study of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between junior colleges of Korea and of America. *J Educ Res* 1993; 12(1): 1-32.
15. Kim JY. The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motivation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4): 503-9.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4.503>.
16. Shin SH.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oral symptoms in health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4; 14(4): 519-26.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4.519>.
17. Hwang CI, Hwang JH. A comparison on major curriculum of 2-year, 3-year, and 4-year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s in Korea.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3; 23(3): 224-32. <http://dx.doi.org/10.4332/KJHPA.2013.23.3.224>.
18. Warren KS. The humanities in medical educ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984; 101: 697-701.
19.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012; 19: 261-8.
20. Kim JH, Lee KW. Why the medical education hasn't been changed?. *Korean J Sociological Assoc* 2000; 34: 109-34.
21. Park MH.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Korean humanity care nursing education. *Korean J Med Ethics* 2013; 16(2): 194-215.
22. Lim HY, Hwang CI. Learner's perception on the teachers' questioning behavior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lass. *J Educ Dev* 2010; 26(2): 129-48.
23. Son JY. Analysis and study of students' evaluation on the dent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education [Master's thesis]. Seoul: Univ. of Seoul National, 2013.